

아카데미의 장난감



아카데미의 재학생들은 나체 체벌을
받는 예반에게 희롱의 손길을 뻗기
시작한다



뛰어난 외모와 지성으로
아카데미의 동경의 대상이었던
에반

최근 들어 그는 더욱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었다

바로 이례적으로 예반이
받고있는
징계때문이었는데...

거기를 가리고
있지도 않잖아...!

올 탈의 상태로 아카데미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으태

허억...

터, 털이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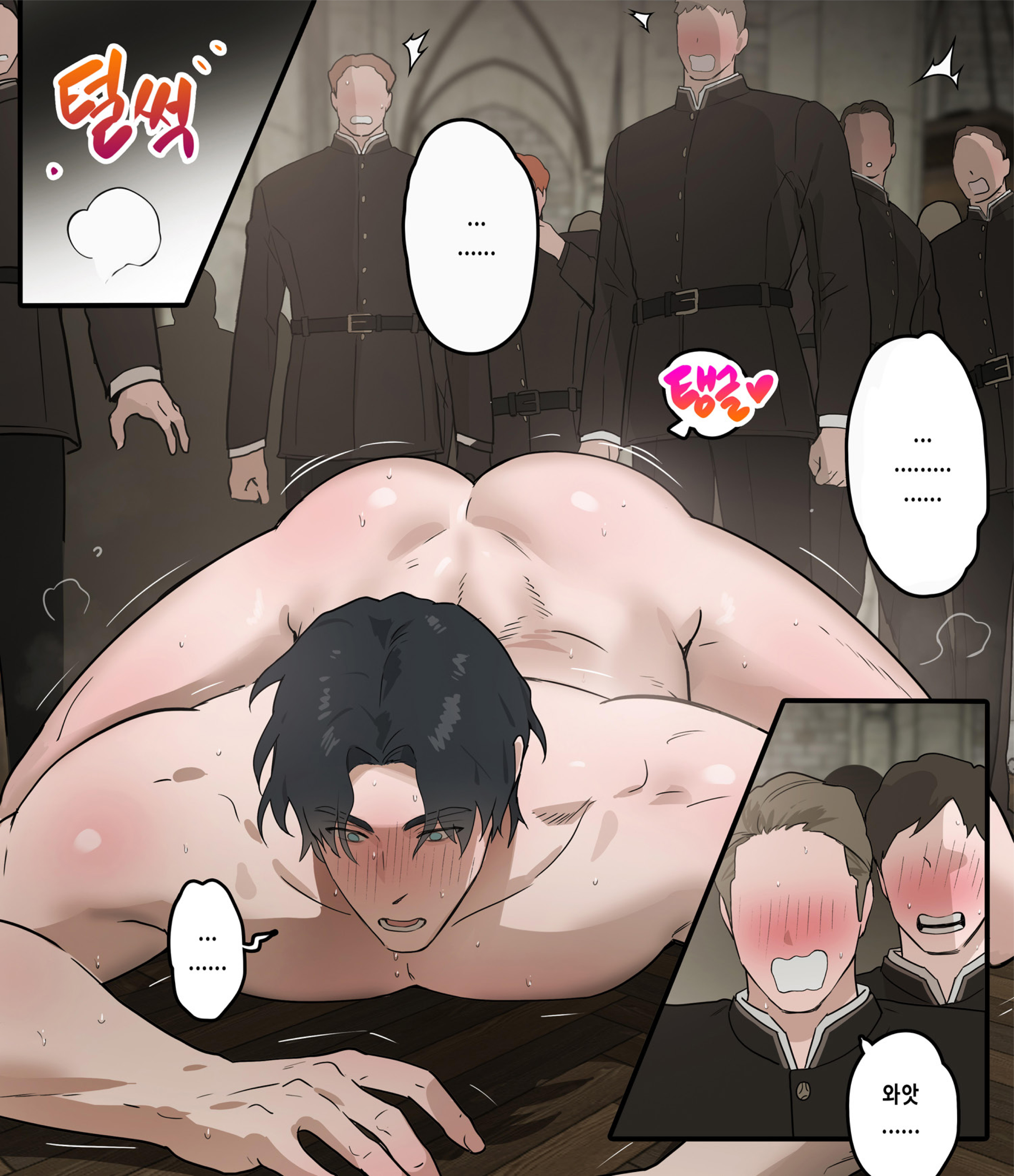
으태

이렇게 수위 높은
징계가 있을 줄
몰랐어...

에반씨 털이
수북해♥

에반은 성기를 드러낸 채
수업과 더불어 모든 교내
활동을 참여해야했다

??!



다리가 벌려져서...

보, 보인다...!

웅찔

우와앗...!

또,

똥구멍이...

음부가 전부
드러났어...!

웅찔
웅찔

에반 선배
부끄러운지 항문을
움찔거리고 있어♥

이, 이건 너무
심하잖아...!

진중한 얼굴 아래에
저런 귀여운 색깔을
숨기고 있었을 줄이야♥

똥구멍 주름까지
선명하게 보인다고...!

뭐야 저거...!

에반이 알몸 징계를
받는다는 게
사실이었구나...

대박...

조심해!
흔들리잖아!

이 봐...!

우왓!

화성

와장장

웅성

망했다...

이거 엄청나게
비싼건데...!

뭐야?

웅성

!

교수가 난리 칠 텐데
어쩌지...!

잠깐,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따지자면 복도에서 성기를
과시하듯이 보여준 에반의
잘못이지

...뭐...?

그러니 네가
책임져라 에반

그리하여 예반은 깨트린
조각상의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게 아니야!

....
.....



정확히 포즈를
취해야지!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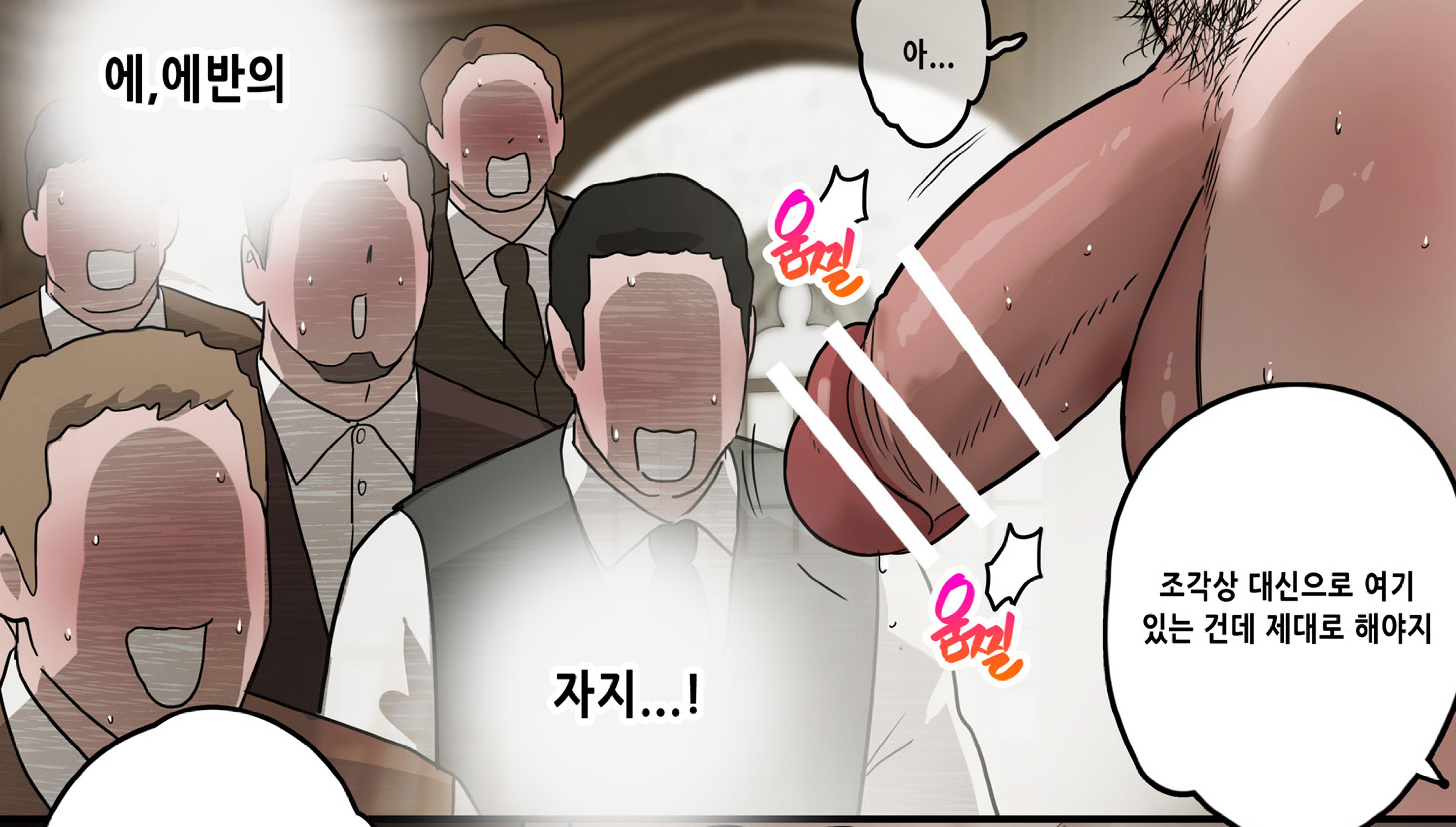
짝

원래 조각상은 분명히
다리를 활-짝하고 벌리고
있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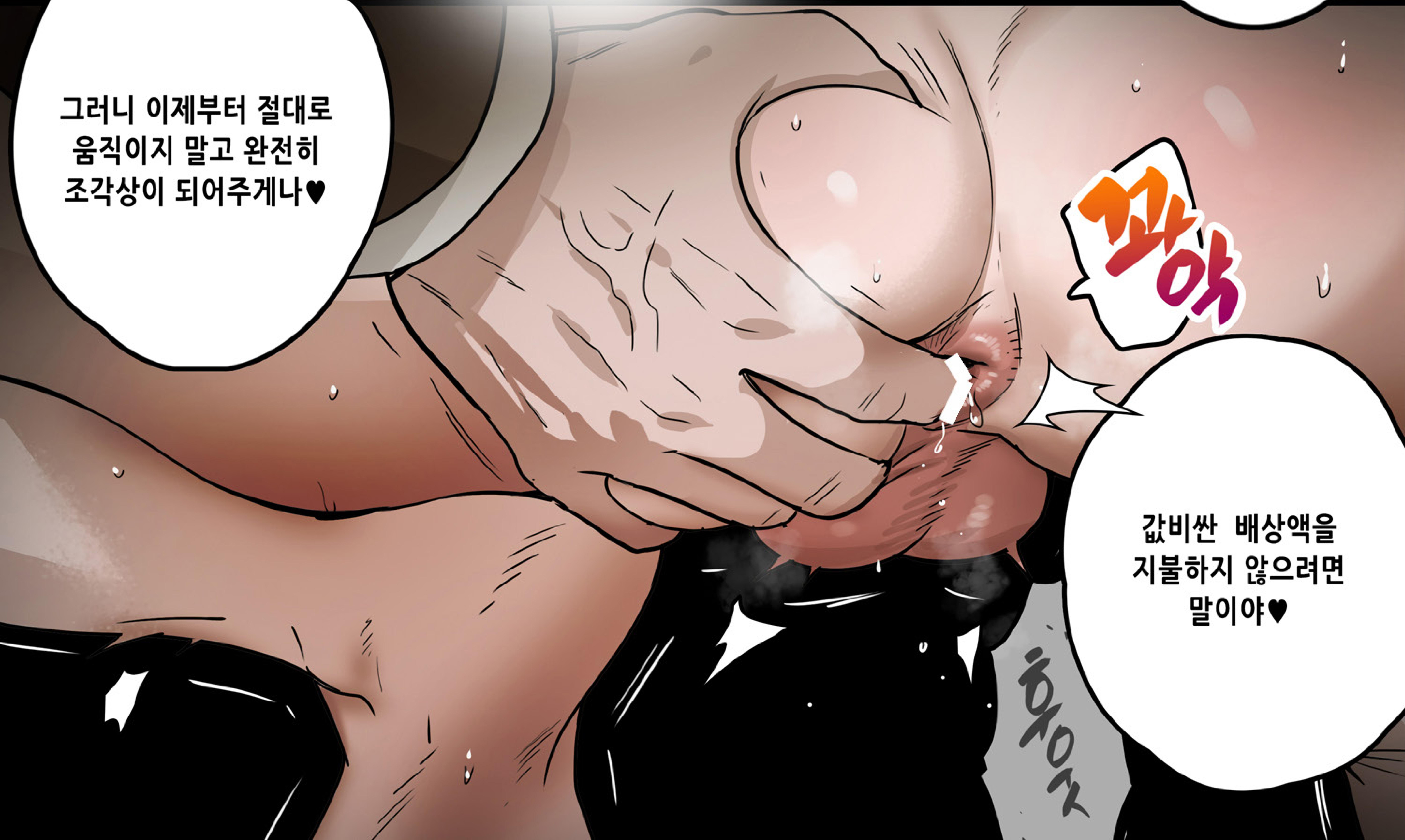
달콤

으...

에, 에반의



그러니 이제부터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완전히 조각상이 되어주게나♥



어째서 성기 부분을
그리지 않은 건가요?

음?

이제보니 많은
학생들이 성기 부근은
생략하거나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네요

그게..
.....

부끄러운 건가요?

...
.....

그렇다면...

신체를 부끄럽다고
생략하다니 예술인의
태도에 어긋나는군요

이번 평가는
성기묘사를 평가
기준으로 삼도록 하죠

당석

이건 그냥 이 갈라진
틈으로 아기씨를 풋풋하고
뱉는 게 전부인 단순한
기관일 뿐입니다♥

mo

mo

그러하니 모두 자세히
관찰하고 멋지게
표현해 주세요

가까이서 자세히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수상
수상

흠흠...여기선 잘
안보이네...

난 눈이 좋질
않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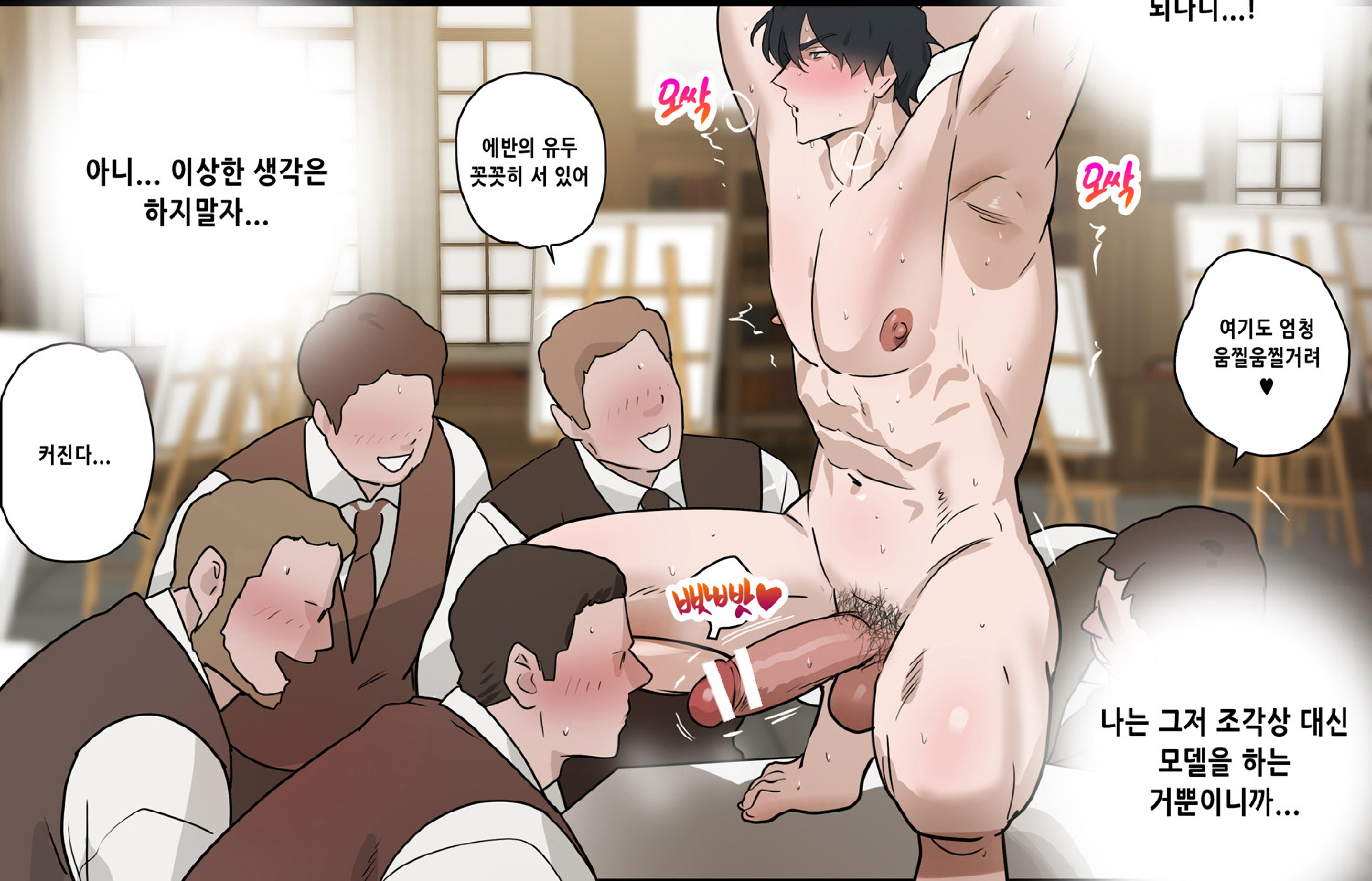
나도...

다들 일어나 버리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우루루~



모두에게 성기를
관찰당하게
되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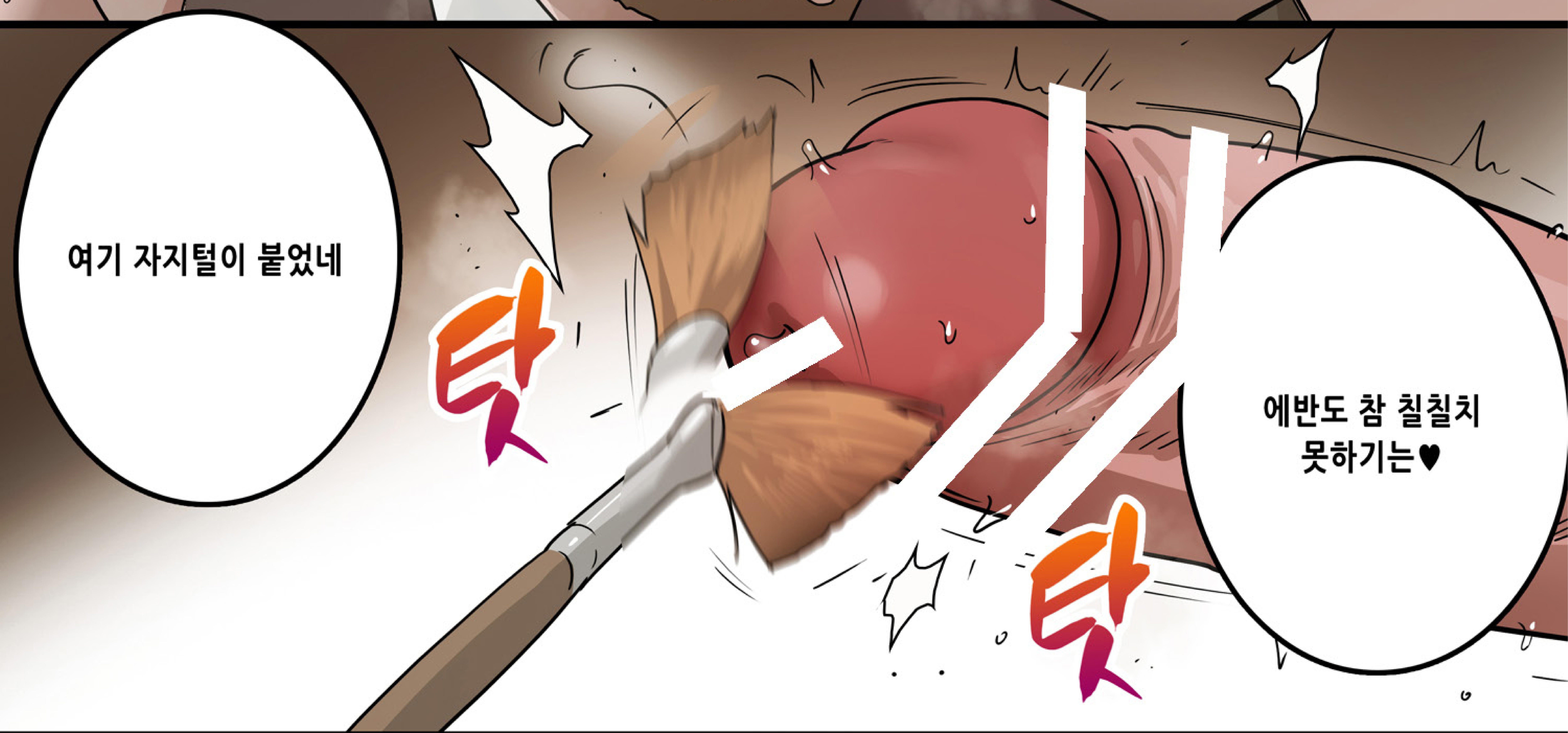


하핫



여기 자지털이 붙었네

에반도 참 칠칠치
못하기는♥





튕겨나

가랑이 벌리고 자지
괴롭혀지는 에반을
보게 되다니♥

갈라진 틈에서 뭔가
붓하고 나왔어♥

귀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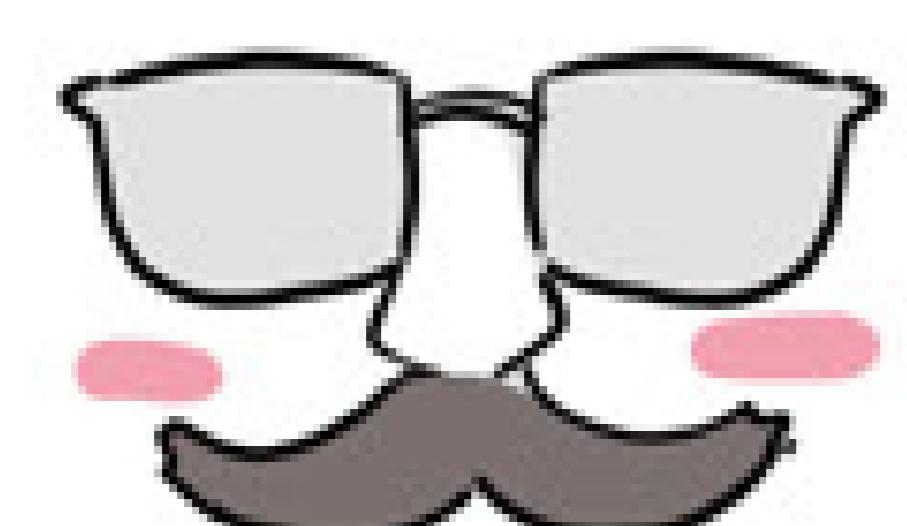
나의 붓놀림때문에
에반의 자지가
움찔움찔거려♥

붓

튕겨나

튕겨나

아아 역시 에반군은
인기가 많군요♥



튕겨나

에반씨 견디기 힘든지
부들부들 떨고 있네



아아 여기도
질척질척한 게 잔뜩
나왔네

파하

쭈

윽

예민한 부위인데
어떻게 할까나...♥

으

으쌰

으으

물론 깨끗하게
털어줘야지♥

으으으

으

다, 단단한
붓으로...

구멍
문질문질♥

와...

나온다....!

풋

우와앗!

갈라진 틈 사이로
정액이 분출되고
있어...!

우왓...!
자세가 너무 천박하잖아♥

쩝쩝♥

쩝쩝♥

똥구멍까지 저렇게 활짝
벌려대다니... 완전히
발정난 짐승꼴이군...!

드래스

드래스

파하

에반의 소중한 구멍이
활짝 벌어졌어...♥

조금 간지럽힌 것만으로
정액이나 뿯물 싸버리고...
완전히 변태라고...!

후후...
우정의 손길들이
에반에게는 조금
버거웠나 보군요♥

다음 수업 때 이어서
작업하겠습니다

에반이 번번히 자세를
무너뜨렸으므로 수업은
연장되어 결국 에반은
한달간 알몸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후 모든 일정이
끝나면 아카데미의
재학생들은 황금같은
자유시간을 누렸다



교수와 사감의 눈을 피해
작은 일탈을 즐기는
이들도 있었다



몰래 들여온 술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그중 하나였는데
학업 스트레스로 긴장된
심신을 이완해 주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우으...

술에 취해 일탈을 하고 있었던
것은 고고했던 예반 그레이도
마찬가지였다

파하

응...

츄웁

에반선배 여기도
있다구요♥

꺄악

응...

후옷...!

아...

에반선배의 입 안
부드럽고 따뜻해...!

하아...

꺄악!

꺄악!





에반선배는 거칠게
다루어지는 쪽에 더
기뻐하는구나♥

오웃...!
목구멍에 깊이 박아주는
것만으로 가볍게
가버리다니♥



하하 예반 조심해야지

똥구멍 활짝 열려서
보이고 있다고♥

그게 아니면 의도한
걸까나♥

응옷...
.....!

오옷 진짜
하는거냐...!

전부터 예반의 구멍에
한번 넣어보고 싶었어

우우우

오...온
...!

온

온
온

흐긋...

완벽한 학생대표의
조임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더라고♥

와앗...진짜
들어가고 있어...!

응호온...

저, 전부
넣었어...!

지, 진짜로 예반이
남자를
받아들였다고...!

이, 이게 바로
남자끼리의 섹스♥

에반의 구멍 한껏
벌어져서 커다란 자지를
삼키고 있어♥

여, 역시 남자와 해본
것일까나

전혀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도 완벽한
남자였던 에반의
후장섹스라고♥

타

캬

하아

지금 예반의 내벽은 내
자지를 기쁘게 꼬옥♥
조이고 있다고

역시 착각이
아니었어...!

쿵 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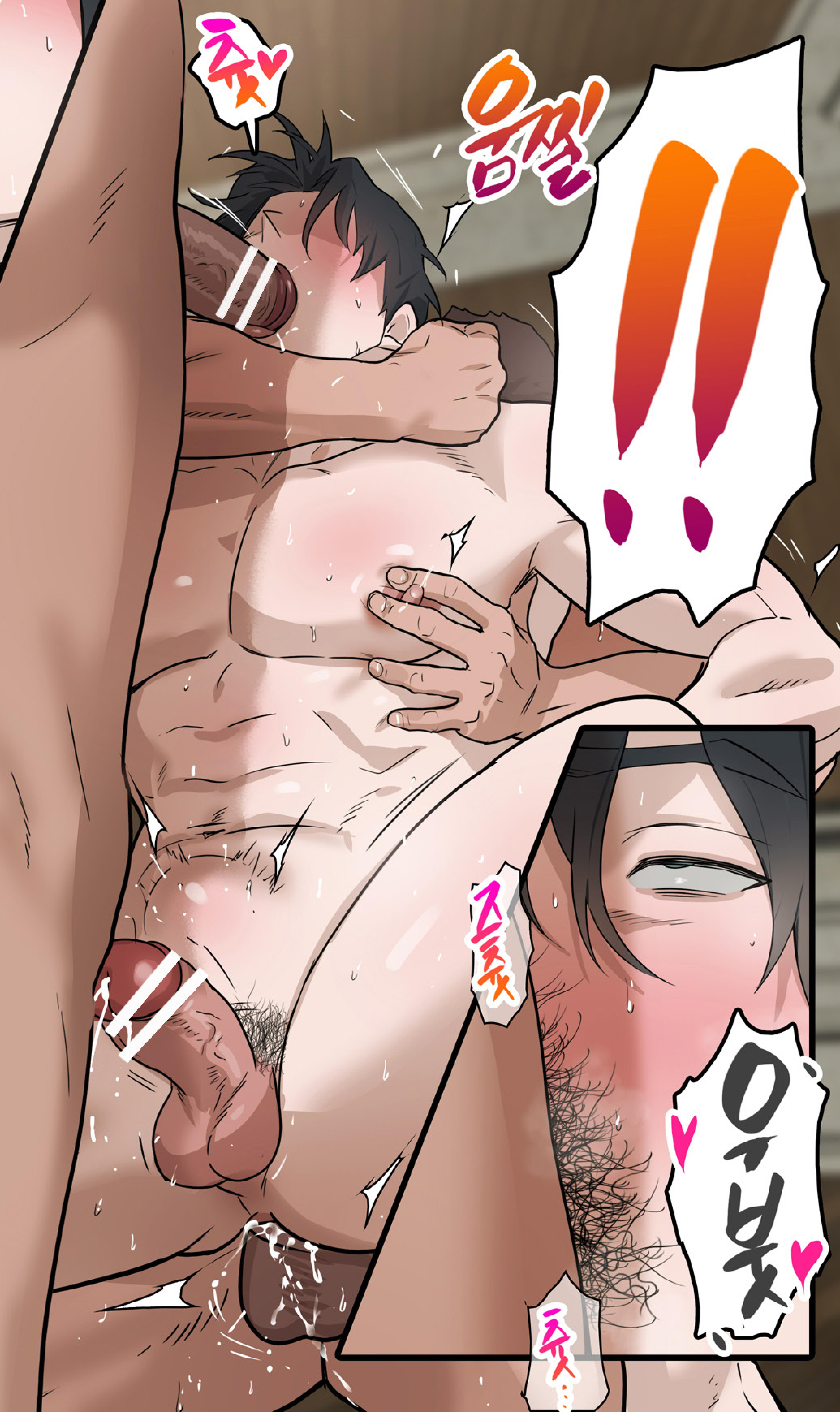
쿵 쿵

쿵 쿵

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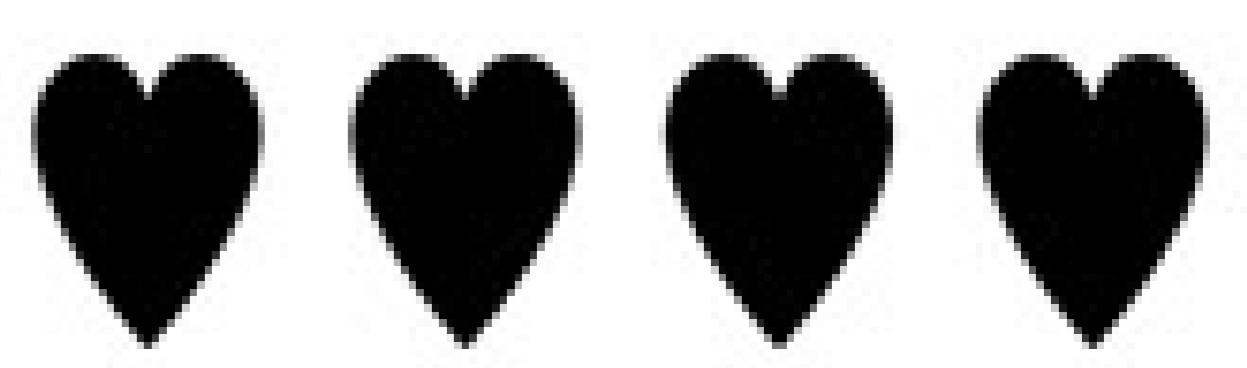
예반의 자지가 그
증거다

뱃가죽이 볼록해질
정도로 박아대고
있는데도 발기하다니!



이대론...

온몸이 자지용
장난감이 되어버렸



괴, 괴로워잇



KISS♥

KISS♥

발자국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